

번역의 방향과 접속 부가어의 의미

최진실
(부산대)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와 한국어 간 번역에서 번역의 방향에 따라 접속 부가어(conjunctive adjuncts)¹⁾의 번역이 달라지는 양상을 의미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밝히는 데 있다. 접속 부가어는 문장 간의 의미-논리 관계를 연결하는 표지이며 문장 이상의 층위에서 나타나 전체 텍스트의 응집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텍스트 요소로 할리데이(Halliday)를 필두로 한 체계기능문법 연구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이러한 접속 부가어의 중요성은 비단 단일 언어 내의 연구(차윤정 2002: 49; 할리데이와 매티슨(Halliday & Mattiessen) 2004: 541; 도겔로(Dorgeloh) 2004: 1761)뿐만 아니라 대조언어연구(구(Koo) 2000: 445; 도(Do) 2006: 1)와 두 언어 간의 전이를 다루는 번역연구(압둘-파타(Abdul-Fattah) 2010: 1; 푸투 누 아요미 외(Putu Nur Ayomi, et al.)

1) 할리데이와 매티슨(2004)의 논의에 따른 것이다.

2010: 1)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영어 접속 부가어의 번역현상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연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번역방향에만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라서 영한, 한영 양방향의 관점에서 접속 부가어의 번역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Cheong 2006: 363)에서도 지적하듯이, 한국어와 영어를 대상으로 하는 번역에서 번역방향이 번역결과물을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접속 부가어의 영한, 한영 번역을 비교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요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접속 부가어의 번역에서 의미적 특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국어와 영어의 접속 부가어의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최진실 2010: 78). 이러한 특성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언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특성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번역의 방향에 따라 번역되는 접속 부가어의 의미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 a. 'It will have to be paid for,' they said. 'It isn't natural, and trouble will come of it!' But so far trouble had not come...
- a'. “값을 치러야 할 거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길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설 3)²⁾
- b. 그것은 얼핏 보면 검은 빛깔의 덩어리여서 마치 붉은 사과 껍질 속에 검은 내용물이 충만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검은 내용물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 b'. At a quick glance, it was just a dark mass, so that it looked like the inside of the red apple was dark. Except it was moving. (소설 8)

(1a)에서 ‘But’³⁾은 선행담화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벗어난 것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기대의 부정의 의미이고, ‘그러나’로 번역되었다. 한편 (1b)의

- 2) 숫자는 논의의 편의상 분석 텍스트에 임의적으로 붙인 것이다. 분석 텍스트 목록은 3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 3) 본 논문에서 ‘But’과 같이 접속 부가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 것은 문장 간의 연결을 담당한다는 것으로 저자의 특별한 의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는 ‘But’으로 번역되지 않고 ‘Except’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번역방향에 따라 접속 부가어의 의미패턴이 달라지는 문제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연구 질문을 도출할 수 있다.

- 1) 번역방향에 따라 영어와 한국어 접속 부가어의 표면적인 번역패턴이 유사한가(예: ‘그리고’-‘And’/‘And’-‘그리고’의 대응비율이 유사한가)?
- 2) 영어와 한국어 접속 부가어의 세부 의미대응 양상이 어떠한가?
- 3) 번역의 방향에 따라 특정 접속 부가어가 생략되는 비율은 접속 부가어의 세부 의미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번역방향에 따른 접속 부가어의 의미적 번역패턴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논의 대상은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 Hasan 1976)이 의미기능에 따라 분류한 4가지 접속관계 즉, 부가(additive), 역접(adversative), 원인(causal), 시간(temporal) 관계에서 ‘And’, ‘But’, ‘So’, ‘Then’으로 한정하며 번역에서 이와 대응되는 한국어 접속 부가어로 한정한다. 영한과 한영의 번역경향을 비교하기 위해서 분석 텍스트로 소설을 선정하고, 원천언어(Source Language, 이하 SL) 기준 1,000어절로 분석범위를 한정한다. 이는 실증적 논의를 위한 범위가 대부분 1,000어절인데서 착안한 것이고 논의의 범위를 객관화하기 위함이다(최진실 4)⁴⁾. 특별히 소설로 장르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한영번역 자료를 수집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과 영한/한영의 장르편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양적인 자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엑셀 기반 코퍼스 구축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접속 부가어 번역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영어 접속 부가어와 한국어 접속 부가어의 의미를 논의한다. 3장에서는 번역방향에 따른 접속 부가어 번역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논의한다.

4) 각 작품에는 원저자나 번역가의 특징적인 문체가 드러난다. 이러한 특성을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품 전체를 분석하는 것 보다 분석범위를 일정하게 맞추어 여러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접속 부가어 번역연구 개관

최근 번역연구에서 접속 부가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접속 부가어의 명시 유무가 선택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특정 접속 부가어를 명시하고 생략하는 데는 대상 언어의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와 같은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반영될 수 있어서 ‘번역가의 개입’과 같은 이슈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메이슨(Mason 1998: 170)에서는 프랑스어와 영어의 논쟁적 텍스트에서 일반적인 텍스트 규범에 어긋나는 유표성(markedness)을 드러내는 접속 부가어의 생략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번역가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둘째, 접속 부가어도 언어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SL이나 목표언어(Target Language, 이하 TL)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산즈(Sanz) 2003: 291; 최진실 78). 산즈(2003)에서는 영어-스페인어 관광 텍스트 번역에서 나타나는 접속 부가어의 통사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최진실(78)에서는 소설, 교양, 신문, 연설의 4가지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접속 부가어의 영한번역 현상을 통사적, 의미적, 장르적 관점으로 나누어 번역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전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다.

셋째, 접속 부가어는 번역 텍스트에서 비(非)번역 텍스트와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번역의 보편소(translation universals) 가설을 검증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요인은 첫째, 둘째 요인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 접속 부가어가 생략 또는 추가되는 현상과 SL이나 TL의 통사적, 의미적 특징에 따라 번역되는 현상은 번역이 비번역보다 더 명시화된다는 명시화(expliciation)가설, 번역이 TL의 특성과 유사하게 된다는 표준화(normalization)가설 등을 검증하는 데 적절하기 때문이다. 최근 코퍼스의 개발로 대량의 자료검증이 가능하게 되면서 셋째 요인과 연관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찌아오와 유(Xiao & Yue) 2009: 237; 찌아오 2010: 5).

접속 부가어 번역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본격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L과 TL에 대한 세밀한 질적 분석이 요

구되는 접속 부가어 번역의 의미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접속 부가어 번역의 의미현상을 번역 방향에 따라 세밀히 비교한 연구는 더욱 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2.2. 접속 부가어의 의미와 번역

영어 접속 부가어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로 할리데이와 하산에서는 부가, 역접, 원인, 시간 4가지 의미범주에 따라 접속 부가어를 분류하였다. 이 기준은 할리데이의 후속연구(할리데이와 매티슨)에 비해 간결하고, 또 다른 학자들의 분류(예: 프레이저(Fraser) 2004; 블랙모어(Blakemore) 1992)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심리언어학 등의 응용연구(예: 로월스(Louwse) 2002: 44)에서 많이 쓰인다. 한국어 접속 부가어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부가, 역접, 원인 또는 이유로 구분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강범모 2002: 62, 김미선 2001: 46 참고). 그런데 번역현상에서 나타나는 의미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대분류 외에도 세부 의미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진실(14)에서는 부가, 역접, 원인,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가어 중에서 실제 텍스트에서의 사용빈도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어 접속 부가어를 각각 의미별로 선택하고, 실제 번역에서 이들 영어 접속 부가어의 번역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한국어 접속 부가어 쌍을 대응시켜 영어와 한국어 접속 부가어의 세부 의미 대응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할리데이와 하산, 하티프와 메이슨(Hatim & Mason 1990) 등에 기초하여 영어의 세부 의미를 설정하고, 김미선(46), 장기열(2003) 등에 기초하여 한국어 접속 부가어의 세부 의미를 설정하였다. 그 논의에 따르면 ‘and’는 단순부가, 강조, 대조, 역접, 화제 전환, 시간적 연속의 세부 의미를 나타내며, 이에 가장 많이 대응되는 ‘그리고’는 나열, 첨가, 대조, 전환, 양보, 계기를 나타낸다. 또한 ‘But’은 기대의 부정, 대조, 화제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며 ‘그러나’는 기대의 부정, 전환, 대조, 정정, 제약, 예외의 의미를 나타낸다. ‘So’는 원인과 연속의 의미를 나타내며 ‘그래서’는 원인과 결과우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Then’은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며 가장 많이 대응되는 한국어 접속 부가어 ‘그러자’는 계기, 동시, 이유의

의미를 나타낸다(최진실 24-38). 최진실에서는 세부 의미가 나타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원형적인 의미로 설정하여 영어와 한국어의 의미대응 양상을 설명한다. 그러나 의미 원형성은 손남익(2005: 318)에서 지적하듯이 원형의 성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범주의 구성요소가 동등한 자격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영한번역의 방향뿐만 아니라 그 역방향에서 나타나는 의미현상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진실의 영어, 한국어 접속 부가어 세부 의미 분류를 기초로 한영방향에서도 의미대응이 유사한지를 살펴본다. 번역방향을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장르를 통제하여 소설로 국한하고 먼저 영한번역의 의미대응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그 역방향의 의미대응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⁵⁾.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영한번역과 한영번역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엑셀 기반의 문장 대 문장 병렬 코퍼스를 구축한다. 본질적으로 실증적인 연구에 근간을 두고 있는 번역 연구를 위해서는 대표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량의 언어자료를 전산화한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산화된 언어자료의 뭉치를 ‘코퍼스’⁶⁾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는 세종 계획 한영 병렬코퍼스의 경우, 다량의 언어자원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객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번역의 방향에 따른 장르변이가 통제되어 있지 않아서, 장르의 변이를 최소화하여 번역방향을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분석 장르를 소설로 국한하여 소규모의 코퍼스를 구축하기로 한다. 형태

-
- 5) 최진실의 논의에서는 소설 외에도 교양, 신문, 연설의 장르에서 나타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영 데이터의 범위와 동일하게 영한 데이터의 범위를 한정한다.
- 6) 강범모(2008: 7)의 정의에 따르면 코퍼스는 발화된(구어, 문어) 언어자료의 집합체로서 ①어떤 언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며, ②균형성과 대표성을 가진, ③전산화된 자료이다.

분석이나 다른 주석을 달지 않고 ST와 TT의 문장 정렬까지만 한정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코퍼스는 김홍규(2000: 25)의 분류에서 ‘문장 대 문장 코퍼스’에 해당된다.

3.1. 코퍼스 설계

김홍규(25)에서 지적하듯이 병렬 코퍼스의 구축은 많은 인원과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의 목적이 특별한 경우, 또는 기존의 병렬코퍼스로 포괄할 수 없는 연구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연구자 스스로의 코퍼스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별다른 프로그래밍이 없어도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엑셀을 사용하여 코퍼스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다. 다음은 코퍼스 구축의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엑셀기반 문장 대 문장 병렬 코퍼스 구축 단계

1단계: 코퍼스 설계
● 가설 설정
● 사용 프로그램 선택
● 장르 선택
2단계: 자료 수집
● ST와 TT의 자료 수집
● 저작권 획득
● 종이자료의 전산화
3단계: 전 처리
● 문장단위 마킹
● 열과 시트의 레벨 작업
● 한국어, 영어의 필터링 연결
4단계: 문장 대 문장 정렬

1단계에서는 코퍼스 활용프로그램으로 엑셀을 선택하고, 장르를 소설로 한정한다. 2단계에서는 영한번역과 한영번역의 ST와 TT쌍을 수집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다. 저작권은 대규모나 소규모나 코퍼스 구축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점인데 본 연구는 연구용으로만 국한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하려는 의도가 없으므로 추후의 해결문제로 남겨둔다. 그 다음 종이자료를 전산화한다. 만일 pdf 형식이나 전자문서의 형식이 존재하는 경우는 파일만 변환하여 쓰면 된다. 3단계에서는 엑셀이 읽을 수 있는 파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엑셀에서는 문장을 엔터(enter) 친 단위로 읽기 때문에 ST와 TT의 전산화된 파일을 입력할 때 엔터 단위로 입력해야 한다. 또한 엑셀 파일에서 열과 시트의 레벨을 정하고, 필터링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열에 필터를 연결한다. 4단계에서는 2단계와 3단계를 거친 원시 코퍼스를 엑셀파일에 열어서 ST와 TT를 문장 단위로 정렬한다.

균형성과 대표성을 만족하는 코퍼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가 적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352)에서 지적하듯이 이상적인 코퍼스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 확고하고 신속한 규칙은 없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장르의 변이를 최소화하여 양방향의 번역을 비교하기 위하여 소설 장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자료도 현재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영한/한영 양방향의 번역 자료로 소설로 국한하게 되었다.

소설은 서사(narrative) 텍스트로 서술과 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에 문어체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구어체적인 성격도 다분히 갖고 있는 텍스트이다. 소설의 이러한 문어/구어체적 성격은 문어체에서 나타나는 형식(예: 그런데, 하지만 등)과 구어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예: 한데, 허나 등)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의 접속 부가어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소설은 양방향의 번역 자료를 수집하기에 가장 용이한 텍스트 중에 하나이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포함한 분석자료 목록이다.

〈표 2〉 분석자료 목록

방향	번호	작가/번역가	연도	제목	출판사
영한	1	Joanne Rowling	1998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Scholastic Inc
		김혜원 옮김	1999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문학수첩
	2	James Joyce	2000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Oxford Univ. Press

	이상옥 옮김	2006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3	John Ronald Reuel Tolkein	2002	The Lord of the Rings 1	Houghton Mifflin Co.
	김번, 김보원, 이미애 옮김	2007	반지의 제왕 1	씨앗을 뿌리는 사람
4	Jane Austen	2005	Pride and Prejudice	Penguin
	황중호 옮김	1997	오만과 편견	하서 출판사
5	Lauren Weisberger	2003	The Devil Wears Prada	Anchor Books
	서남희 옮김	2006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	문학동네
6	David Herbert Lawrence	1999	Sons and Lovers	The Modern Library
	정상준 옮김	2002	아들과 연인1	민음사
7	John Ernst Steinback	2002	East of Eden	Penguin Books
	정희성 옮김	2008	에덴의 동쪽1	민음사
8	최인호	2004	개미의 탑	한림출판사
	공유정 옮김	2004	Tower of Ants	한림출판사
9	박완서	1999	어떤 나들이-이별의 김포공항	문학동네
	Kyung-ja Chun et al.	1999	My Very Last Possession: And Other Stories by Pak Wansö	An East Gate Book
10	이효석	1982	메밀꽃 필 무렵 외	자이언트 문고
	Chong-un Kim & Bruse Fulton	1998	A Ready-Made Life: Early Masters of Modern Korean Fiction-Wife	University of Hawai'i Press
11	공지영	1994	인간에 대한 예의	창작과 비평사
	Bruse Fulton & Ju-Chan Fulton	1997	Wayfarer-a New Fiction by Korean Women	Women in Translation
12	이청준	2004	눈길	한림출판사
	이현재 옮김	2004	The Snowy Road	한림출판사

13	김유정	2003	김유정 전집 I -아내	가람기획
	Chong-un Kim & Bruce Fulton	1998	A Ready-Made Life: Early Masters of Modern Korean Fiction-Wife	University of Hawai'i Press
14	이문열	200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민음사
	Kevin O'Rourke	2007	Our Twisted Hero	민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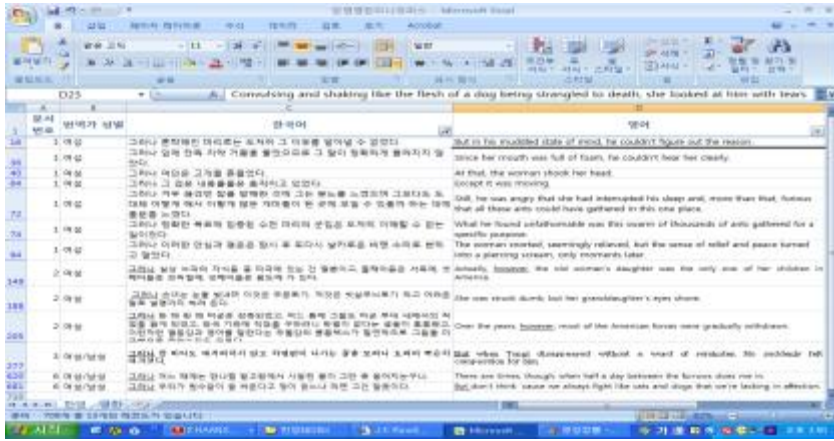
분석 범위는 ST기준 1,000어절로 한정하고 그에 해당되는 TT를 분석한다.

3.2. 텍스트 정렬

본 연구의 코퍼스는 형태분석이나 주석마크업이 되지 않은 문장 대 문장 정렬 형식의 코퍼스이기 때문에 문장 정렬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다. 동일한 내용의 영어 ST와 한국어 TT를 비교해보면 단어 수는 TT에서 약 30% 줄어드는 반면, 문장 수는 약 30%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최진실 119). 이러한 특성은 문장 정렬에서 일대일 대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대이, 일대삼의 대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역의 방향이 바뀐 경우 이대일, 삼대일의 번역도 나타난다. 이런 경우, 엑셀의 셀병합 기능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행을 맞춰준다.

3.3. 필터링

엑셀기반 코퍼스의 장점은 엑셀의 기능 안에 필터나 정렬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처리 단계에서 필터를 하고 싶은 열에 사용자 지정 자동필터 기능을 연결해놓으면 원하는 내용을 필터할 수 있어 수작업으로 일일이 내용을 찾는 것 보다 훨씬 간편하다. 다음 그림은 한국어 ST에서 '그러나'를 필터하자, 그에 상응하는 영어 TT까지 필터되는 장면이다.



〈그림 1〉 ‘그러나’의 검색결과

4. 연구결과

영한번역과 한영번역에서 ST와 TT의 단어수를 비교해 본 결과, 영한번역에서는 ST보다 TT가 약 30%가량 짧아지는 반면, 한영번역에서는 ST보다 TT가 70%가량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정(363)에서 지적한 번역의 확장(expansion)과 축소(contraction)가 번역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아래의 표는 전체 분석텍스트의 ST와 TT의 단어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3〉 번역의 방향과 단어 수

소설번호	영한번역		소설번호	한영번역	
	ST	TT		ST	TT
1	1,010	828	8	997	1,424
2	994	754	9	1,000	1,831
3	1,015	703	10	1,000	1,867
4	1,007	745	11	1,005	1,378
5	1,003	614	12	999	1,894
6	999	737	13	997	1,884
7	997	672	14	1,005	1,663
평균	1003.57	721.86	평균	1000.43	1705.86

최진실(98)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것이라도 한국어보다 영어의 단어수가 많은 것이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특징이라면 번역의 방향에 상관없이 단어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비율은 유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영번역에서 영어 TT가 늘어나는 수준은 영한번역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난다는 것이 아주 특이하다.

4.1. 접속 부가어의 영한번역

먼저 한영번역에서 ‘And’, ‘But’, ‘So’, ‘Then’의 대응양상을 살펴보자.

〈표 4〉 소설 영한번역의 접속 부가어 의미대응 양상

ST형식	ST의미	ST빈도	TT 패턴	TT 빈도	TT의미	의미별 빈도	
And	단순부가	14	그리고	2	첨가	2	
			생략	11			
			기타	1			
	강조	1	1	게다가	1	강조	1
	대조	2	그런데	1	대조	1	
			생략	1			
	화제전환	5	그런데	2	전환	2	
생략			3				
But	기대의 부정	7	그러나	4	기대의 부정	4	
			하지만	1	기대의 부정	1	
			그런데	1	기대의 부정	1	
			생략	1			
	대조	3	하지만	2	대조	2	
			그러나	1	대조	1	
	화제전환	2	그런데	2	전환	2	
so	단순원인	3	그래서	1	원인	1	
			생략	1			
			기타	1			
Then	시간	7	그러자	4	계기	4	
			그런데	1	계기, 전환	1	
			그리고	1	첨가	1	
			생략	1			

위의 표를 최진실(77-94)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And’의 역접과 시간적 연속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빼고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접속 부가어 영한 번역에서 소설만의 문체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ST와 TT의 세부 의미가 서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지만 ‘Then’의 대응의미는 ‘화제전환’과 ‘첨가’와 같이 다른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 a. And the cottages of these coal-miners, in blocks and pairs here and there, together with odd farms and homes of the stockingers, straying over the parish, formed the village of Bestwood. Then, some sixty years ago, a sudden change took place.

a'. 이 탄광 광부들이 사는 오두막은 여러 채가 모여 있거나 여기저기 쌍쌍이 붙어 있었다. 드문드문 보이는 농가가 긴 양말을 짠 사람들의 집들과 더불어 교구 전체에 흩어진 채 베스트우드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그러자) 육십 년쯤 전에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났다. (소설 6)

b. Under the live oaks, shaded and dusky, the maidenhair flourished and gave a good smell, and under the mossy banks of the water courses whole clumps of five-fingered ferns and goldy-backs hung down. Then there were harebells, tiny lanterns, cream white and almost sinful looking, and these were so rare and magical that a child, finding one, felt singled out and special all day long.

b'. 떡갈나무 밑의 짙은 그늘에는 공작고사리가 무성하게 자라나 향긋한 냄새를 풍겼고, 이끼 낀 강둑 아래는 다섯 잎 양치류 식물들이 덤불을 이루었다. 그리고(*그러자, 그리고 나서) 안쓰럽게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우윳빛 잔대와 작은 등꽃이 피어 있었는데, 이런 꽃들은 어린아이 눈에 워낙 희귀하고 신비해 보여서 한 송이라도 찾아내면 하루 종일 으스스대며 흐뭇해했다. (소설 7)

(2a)의 ‘then’은 탄광이 있던 시절의 베스트우드 마을의 모습과 변화가 일어난 사건을 연결하면서 기본적으로 시간적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후행담화의 사건이 이전 사건과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에서 비명시적으로 화제전환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번역에서는 화제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2a)처럼 ‘그런데’로 번역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then’의 대표적인 번역패턴인 ‘그러자’를 넣어서 번역하면 어색하다. 이는 최재희(1991: 178)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그러자’의 의미는 시간적 간극을 나타내는 계기와 ‘거의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2a)와 같은 명백한 화제전환을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2b)의 ‘then’은 풍경묘사에 대한 문장을 연결하고 있어서 ‘그러자’나 ‘그리고 나서’를 넣어서 (2b)를 번역하면 의미가 완전히 이상해진다. 즉, (2b)의 ‘then’을 시간적 의미로 보기보다는 ‘and’와 같은 부가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는 최진실(77)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and’의 번역으로 ‘그러자’와 의미가 유사한 연결어미 ‘-자’의 번역이 나타나는 현상과 부합한다. 따라서 ‘then’의 의미로 시간적 의미 외에 부가의 의미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4.2. 접속 부가어의 한영번역

<표 4>를 기초로 하여 ‘그리고’, ‘게다가’,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그래서’, ‘그러자’의 영어 번역을 살펴보자.

<표 5> 소설 한영번역의 접속 부가어 의미대응 양상

ST형식	ST의미	ST빈도	TT 패턴	TT 빈도	TT의미	의미빈도
그리고	첨가	1	생략	1		
	대조	1	생략	1		
	나열	3	생략	3		
	계기	2	then	1	시간적 연속	1
And then			1	시간적 연속	1	
게다가	강조	1	번역안됨	1		
그런데	대조	2	But	1	대조	1
			;	1	대조	1
	전환	2	And	1	화제전환	1
			생략	1		
	기대의 부정	2	however	1	기대의 부정	1
			생략	1		
설명	1	So	1	연속	1	
그러나 (14)	기대의 부정	7	But	2	기대의 부정	2

			Still	1		1
			however	1	기대의 부정	1
			but	1	기대의 부정	1
			생략	2		
	정정	3	But	1	기대의 부정	1
			however	1	기대의 부정	1
			Except	1		
	대조	3	but	1	대조	1
			though	1		1
			생략	1		
계약	1	But	1	기대의 부정	1	
하지만	기대의 부정	5	But	3	기대의 부정	3
			however	1	기대의 부정	1
			생략	1		
	대조	2	And yet	1	대조	1
			And on the other hand	1	대조	1
	전환	2	But	1	전환	1
			To begin with	1		
정정	1	But	1	기대의 부정	1	
그래서	원인	2	And	1	시간적 연속	1
			So	1	원인	1
	결과 유도	2	So	1	연속	1
생략	1					
그러자	계기	1	생략	1		

위의 표에서 나타난 한국어 접속 부가어의 세부 의미는 <표 4>와 비교해서 더욱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표 4>에서 ‘그리고’는 첨가의 의미만 나타난 반면, <표 5>에서는 대조, 나열, 계기의 의미도 함께 나타났다.

먼저 ‘그리고’의 번역을 살펴보자. ST에서 ‘그리고’는 총 7개가 나타났는데 첨가와 대조,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모두 생략되고, 계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만 번역되었다.

- (3) a. 사실 우리 같은 늙은 늙어서 자식까지 없다면 꼭 늙어 죽을밖에 별
도리가 없다. ...하니까 내 말이 이왕 젊어서 되는 대로 자꾸 자식이

나 쌓두자 하는 것이지. 그리고(그러나/하지만) 에미가 낫짜 글렀다
고 그 자식까지 더러운 법은 없으렸다.

- a' To be honest, a dumb fuck like myself, I get old, no kids, what's going to happen to me? I'll starve, for god's sake. ...So, while we're still young, I want a passel of kids. Turn'em out, one after another. Get the idea? Thank God, there's no law that says kids have to be ugly just 'cause their mom is. (소설 13)
- b. 그러던 년이 급시 혜에 벌어지다 흥하게 내 곁에 와 앉아서는 어깨를 비껴대고 슬근슬근 비빈다. 그리고(또/또한) 코가 좋아 보인다니 정말 그러냐고 몸이 달아서 묻고 또 묻고 한다.
- b'. But it works like magic: her face lights up, she cozies up beside me, she rubs up against me with her shoulder and then she rubs some more. When I say her nose looks nice, she gets all hot and bothered: "Really? You mean it?" (소설 13)
- c. 나는 마침내 자리를 일어섰다. 그리고는(그리고 나서) 그 노인의 표정에 밀려 나기라도 하듯 방문을 나왔다.
- c'. Annoyed, I stood up briskly. I then left the room in a haste, as if I were pushed out by mother's expressionless stare. (소설 12)

(3a), (3b), (3c)의 '그리고'는 각각 대조, 나열, 계기를 나타낸다. (3a)는 아이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아이 어머니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서 아들도 반드시 그렇다는 법은 없다고 두 가지 상황을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다. (3a)를 대조를 나타내는 '그러나'로 대체해도 의미가 자연스럽다. 그런데 '그리고'의 대조 의미는 '그러나'의 대조 의미와 다르다. 차윤정(2002: 51)에서 지적하듯이 '그러나'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로 서로 대립되는 문장을 연결한 것은 사건을 의미적 대립보다는 중립적 사건으로 파악하여 나열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한편 이러한 대조의 논리관계는 (3a)에서 접속 부가어로 번역되지 않고 'Thank God'라는 표현으로 함축적으로 나타난다. 이전 담화에서 참담한 생각만 하게 되던 중, 그와 대조되는 희망이 보인 것이다. (3b)는 아내와 남편이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계속 열거하는 상황이고 '또' 나 '또한'으로 '그리고'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번역에서 생략되었다. (3c)의 '그리고'는 '는'과 공기한다는 점에서 확실한 계기의 의미를 나타내며 번역에서 시간적 연속의 의미인 'then'으로 번역되었다.

다음으로 ‘그런데’의 번역을 살펴보자. 실제 한영번역에서 ‘그런데’의 원형적인 의미인 전환의 의미보다 대조와 기대의 부정의 의미가 많이 나타났다.⁷⁾ 위의 표에서 특이한 점은 ‘그런데’가 대조를 나타낼 때 접속 부가어 대신 콜론 ‘:’으로 번역된 점이다. 이는 한국어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영어 특유의 문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TL의 규범에 맞는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역으로 영한번역에서 콜론이나 세미콜론이 나타나는 경우 한국어 특성에 맞는 번역을 위해서 접속 부가어로 바꾸어 번역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김도훈 2008: 190).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런데’의 구어 형식인 ‘한데’와 ‘한데다가’가 각각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강범모·김홍규(2009)의 코퍼스 연구의 결과와 같이 비번역본인 한영번역의 ST는 영한번역의 TT보다 사용되는 접속 부가어의 종류가 다양한 것을 입증한다. 또한 ‘그런데’가 설명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So’로 번역된 것이 특징적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 (4) a. “너희들은 뭐야?”
 “나는 체육부장이고 쟈 미화부장이다.”
 “그런데 너희가 왜...”
 a. “Who are you fellows?”
 “I’m in charge of sports; he keeps the classroom nice.”
 “So, what’s up?” (소설 14)

김미선(115)에서도 지적했듯이 상대방의 말에 어떤 불만을 품고 따져 물을 때 (4a)와 같이 ‘그런데’가 쓰인다. 따지는 것도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의도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런데’의 설명의 의미로 볼 수 있다(김미선 116). 이런 경우에 ‘and’나 ‘but’이 설명의 의미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따지는 구어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쓰이는 ‘So’로 번역된 것이다. ‘So’와 가장 유사한 한국어 접속 부가어 ‘그래서’도 따지는 상황에서 쓰인다.

- (5) “-개도 도망갈 구멍만은 남겨놓고 쫓아야지. 당장 때려잡을 요량으로 함부로 몽둥이를 휘둘러 대다가는 되려 물리기 마련이야.”

7) 분석 텍스트가 소설로 국한되어 있고 대용량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 5>의 결과만으로 ‘그런데’의 원형적인 의미로 대조를 설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할 작정이냐?” (김미선 89)

이러한 따짐의 의미는 기대의 부정을 원형적으로 나타내는 ‘but’이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so’로 번역된 것이다.

‘그러나’의 번역을 살펴보자. <표 5>에서 보듯이 ‘그러나’가 접속 부가어 ‘But’이나 접속사 ‘but’으로 번역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b)처럼 ‘그러나’가 정정과 같은 비원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번역에서 그 의미를 보다 원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번역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1b)에서 ‘그러나’는 얼핏 보면 사과 속에 검은 내용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내용물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으로 선행담화에 대한 정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경우 선행담화에서 후행담화의 사건을 공제하는 의미인 ‘except’로 번역되었다. 할리데이와 매티슨(543)에서도 이러한 ‘except’의 의미를 인식하여 ‘but’과는 다른 범주로 구분한다. 이들의 분류에 따르면 ‘except’는 사건을 확장하는 변이(variation)이며 특히 공제(subtractive)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하지만’의 번역을 살펴보자. ‘하지만’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의미가 기대의 부정인데 ‘하지만’이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but’으로 번역되지 않고 ‘and’로 번역된 것이 특징적이다.

- (6) a. 트죽태죽 꼬집어 가지고 년의 비너쪽을 턱 잡고는 한바탕 훌두들겨 대는구나. **한참 그 지랄을 하고 나면** 등줄기에 땀이 뻘 흐르고 한숨까지 후, 돈다면 웬만치 속이 가라앉을 때였다.... **하지만 년이 훌쩍거리고 앉아서 우는 걸 보면** 이건 좀 재미적이다.

a'. And so we're at each other's throats, me grabfit, the sweat runs down my backbone, I'm panting, and that's when I sort of cool down.... And on the other hand, it's not much fun when the bitch is huddled up sniveling and crying. (소설 13)

(6a)의 ‘하지만’은 문장연결이 아니라 선행담화를 연결하는 거시구조 접속 부가어이다. 이렇게 접속 부가어가 연결하는 단위는 문장에 국한되지 않으며 연속체, 단락과 같은 거시구조까지 연결할 수 있다(김미선 2007: 152; 신지연 2005:

99). 화가 나서 아내와 심하게 싸우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지만 아내가 우는 걸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두 경우를 대조하고 있다.

‘그래서’의 번역을 살펴보자.

(7) a. 년이 나에게서 큰 체를 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을 차차 알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년, 하면 저는 이놈, 하고 대들기로 무언중 계약되었지.

a'. 'Cause I learned, little by little, that the bitch deserves the right to act like she's something. And so from that point on it was like we had an agreement-every time I'd say "Hey, woman!" she'd bark back at me. (소설 13)

최진실(7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And’의 시간적 연속의 의미는 ‘So’의 원인과 연속의 의미와 상당히 유사하다. 원인과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시간성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7a)에서 ‘그래서’는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고 (7a')의 번역에서 이러한 원인의 의미가 시간적 연속의 의미와 합쳐져 ‘And so’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자’의 번역을 살펴보자.

(8) a. 나는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 고개를 들다 말고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마주쳤다. 그러자) 조금 웃어 보았다. 그러자(잠시 후) 그녀는 내 빈 잔에 살포시 차를 따르는 것이었다.

a'. I looked up, prepared to ask my next question, and as my eyes met hers I ventured a smile. She carefully refilled my cup and politely offered it to me with both hands. (소설 11)

(8a)에서 ‘눈이 마주치자’의 ‘-자’는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이를 ‘그러자’로 대체하면 시간적 간극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그러자’는 계기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 다음 웃음을 보이고 난 후 차를 따르는 상황에서 ‘그러자’는 ‘잠시 후’와 대체해도 무방하므로 계기의 의미이다.

지금까지 접속 부가어의 영한번역과 한영번역의 의미대응 현상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1)에

대해서 표면적인 대응비율은 <표 6>과 같다.

<표 6> 영한/한영 번역의 대응비율

영어	한국어	영한대응비율	한영대응비율
And	그리고	9.09%	14.28%
	게다가	4.55%	0
	그런데	13.64%	14.28%
But	그러나	41.67%	42.86%
	하지만	25%	50%
	그런데	25%	14.29%
So	그래서	33.33%	50%
Then	그러자	57.14%	0.00%
	그런데	14.29%	0%
	그리고	14.29%	14.28%

양방향에서 대응비율이 유사한 것은 ‘And’-‘그런데’, ‘But’-‘그러나’, ‘Then’-‘그리고’이다. 연구 질문 2)에 대해서 세부 의미대응을 살펴보면 ‘And’-‘그런데’와 ‘Then’-‘그리고’의 표면대응 비율은 유사하지만 세부 의미대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영한번역에서는 ‘And’가 대조의 의미일 때 ‘그런데’로 번역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한영번역에서는 ‘그런데’는 ‘And’의 화제전환 의미로만 번역된 것이다. 또한 영한번역에서 ‘Then’의 번역으로 ‘그리고’는 첨가의 의미이지만 한영번역에서 ‘그리고’는 계기의 의미일 때 ‘then’으로 번역되었다.

연구 질문 3)에 대해서 영한번역에서 ‘And’는 단순부가일 때 생략되는 비율이 7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양, 신문, 연설을 포함한 최진실의 논의와 상반되는 결과로 최진실의 논의에서는 화제전환일 때 생략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영번역에서는 ‘그리고’의 생략비율이 71.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첨가, 대조, 나열의 의미에서 생략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And’와 ‘그리고’가 나타내는 원형적으로 나타내는 부가 또는 첨가의 의미가 원인이나 다른 논리관계에 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Li 2009: 8). 문장이 진행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부가의 의미를 나

타내게 되며, 이를 굳이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번역의 방향과 접속 부가어의 의미를 분석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영한과 한영번역에서 단어 수 변화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은 최진실(119)과 같이 단순히 영어와 한국어의 특성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오히려 영어권 문화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국내에 잘 알려진 반면, 한국의 문화는 영어권 국가에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 때문에 한영번역에서 번역가는 더욱 명시적인 경향을 드러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TT에서 사용된 ‘그리고’의 세부 의미는 첨가의 의미만 나타난 반면, ST에서 사용된 세부 의미는 대조, 나열, 계기처럼 더욱 다양한 의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비번역보다 번역이 더욱 단순화된다는 단순화(simplification) 가설은 표면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세부 의미 양상에서도 드러난다.

5. 결론

본 연구는 번역의 방향에 따른 접속 부가어의 의미대응 양상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 장르를 소설로 국한시켜 소규모의 엑셀 기반 문장 대 문장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연구결과, 표면대응비율이 유사한 것은 ‘And’-‘그런데’, ‘But’-‘그러나’, ‘Then’-‘그리고’였고, 세부 의미 대응율이 비슷한 것은 ‘But’-‘그러나’로 나타났다. 이는 ‘But’과 ‘그러나’의 의미범위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며 ‘But’과 ‘그런데’가 가장 유사하다는 도의 연구결과에 상반되지만 최진실의 연구결과에는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영한번역에서 생략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And’로 단순부가일 때 생략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최진실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소설에만 국한되는 장르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영번역에서는 ‘그리고’의 생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첨가, 대조, 나열의 의미가 생략되었다.

자료수집부터 구축까지 모든 단계를 연구자 혼자서 진행한 한계로 대규모의 프로젝트에 비해서 자료의 용량이나 코퍼스 구축과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에

서 제한점이 많았다. 그러나 기존의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코퍼스 방법론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접속 부가어 의미에 대해서 일반화하기는 힘들며 장르적 분석과 구어/문어와 같은 담화방식에 따른 연구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범모 (2002)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8) 「언어 기술을 위한 코퍼스의 구축과 빈도(통계)활용」, 『한국사전학』 12: 7-40.
- _____ · 김홍규 (2009) 『한국어 사용빈도』, 서울: 한국 문화사.
- 김홍규 · 정태구 · 김정숙 (2000) 「한·영 병렬코퍼스의 설계 · 구축 및 응용 방안 연구」, 『한국어학』 11: 23-71.
- 김도훈 (2008) 『영한 번역에서 나타나는 문장 부호의 변이 양상 및 번역전략에 관한 연구: Colon, Dash, Semicolon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선 (2001) 『접속부사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7) 「말뭉치 분석을 통한 접속부사의 결속 단위 고찰」, 『한국어학』 34: 141-167.
- 손남익 (2005) 「국어 원형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25: 317-340.
- 신지연 (2005) 「단락 경계에서의 ‘그러나’의 의미 기능」, 『텍스트 언어학』 19: 83-107.
- 장기열 (2003) 「국어 접속부사의 특성과 그 기능」, 『복지행정연구』 19: 175-194.
- 차윤정 (2002) 「‘그리고’의 의미적 특성」, 『우리말 연구』12: 49-69.
- 최재희 (1991) 『국어의 접속문 구성 연구』, 서울: 탑 출판사.
- 최진실 (2010) 『접속 부가어의 영한 번역 연구』,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Abdul-Fattah, Ashraf (2010) *A Corpus-based Study of Conjunctive Explication in Arabic Translated and Non-translated Texts Written by the Same Translators/Authors*,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 Blakemore, Diane (1992) *Understanding Utterances*, Oxford: Blackwell.
- Cheong, Ho-Jeong (2006) 'Target Text Contraction in English-into-Korean Translations: A Contraction of Presumed Translation Universals?', *Meta: Translators' Journal* 51(2): 343-367.
- Do, Anna (2006) *Contrastive Discourse Markers: An Examina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in Korean*, Ph.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Dorgeloh, Heidrun (2004) 'Conjunction in Sentence and Discourse: Sentence-Initial 'and' and Discourse Structure', *Journal of Pragmatics* 36: 1761-1779.
- Fraser, Bruce (2004) 'An Account of Discourse Markers'. Garcés, Pilar., Gómez, Reyes., Fernandez, Lucia. and Manuel Padilla(eds), *Current Trends in Intercultural, Cognitive and Social Pragmatics*, Sevilla: Universidad de Sevilla, 13-34.
- Halliday, Michael Alexander Kirkwood and Ruqaiya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_____ and Christian Mattiessen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Hodder Arnold.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Koo, Yu-Son (2000) 'Contrastive Discourse Markers in English and Korea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8(1): 445-446.
- Louwerse, Max (2002) 'An Analytic and Cognitive Analytic and Cognitive Parameterization of Coherence Relations', *Cognitive Linguistics* 12: 291-315.
- Mason, Ian (1998) 'Discourse Connectives, Ellipsis and Markedness'. Hickey, Leo(ed), *The Pragmatics of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Ltd, 170-184.
- Putu Nur Ayomi, S. and M. Hum (2010) 'Explication of Conjunctive Relation

- in English-Indonesian Translation: A Corpus-Based Study', *Linguistik* 17(17) <http://ejournal.unud.ac.id/abstrak/1%20nur%20ayomi.pdf>.
- Sanz, Rosa (2003) 'The Translation of Tourist Literature: the Case of Connectors', *Multilingua* 22: 291-308.
- Xiao, Richard and Ming Yue (2009) 'Using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the State of the Art'. Baker, Paul(ed), *Contemporary Corpus Linguistics*, London: Continuum, 237-262.
- _____ (2010) 'How Different is Translated Chinese from Native Chinese?: A Corpus-Based Study of Translation Universal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5(1): 5-35.

[Abstract]

Directionality of Translation and the Meanings of Conjunctive Adjuncts

Choi, Jinsil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1) to analyse and compare formal semantic correspondences between English-into-Korean and Korean-into-English translations, 2) to analyse sub-semantic correspondences in both directions, and 3) to examine ellipsis of conjunctive adjuncts in the semantic perspective. Specifically via a study employing a newly built 31,022-word EXCEL-based parallel corpus, it is shown that the pair of 'But' and 'Geureona', which is a typical adversative Korean conjunctive adjunct, shows the similar formal correspondence rate in both directions and their sub-semantics represents the closest patterning. On the contrary, although the pairs of 'And' and 'Geureonde' and 'Then' and 'Geurigo' show the similar formal correspondence rates in both translation directions, their sub-semantic patterns and their correspondences are not identical. In addition, it has been found that the ellipsis rates of 'And' and 'Geurigo' are highest when 'And' signifies "simple additive" and 'Geurigo' represents "additive (cheomga), enumerative (nayeol), contrastive (daejo)".

▶ Key Words: translation direction, conjunctive adjuncts, additive, adversative, causal, temporal

최진실

부산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diane45@pusan.ac.kr

관심분야: 코퍼스, 접속부가어, 언어학

논문투고일: 2011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04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2일